

금속활자 발명에 가려진 역사

강만길

고려대 교수 · 한국사학

《출판저널》의 시론이나 책과 관계있는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 역사학은 금속활자의 발명이 서양보다 2백년이나 앞섰다는 사실을 찾아내고 큰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 서양보다 먼저 금속활자를 만들어 쓴 일이 지금에 큰 자랑거리로 되었지만, 처음 만들었던 고려시대에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잘 몰랐다. 그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금속활자를 처음 만들었는지 제대로 기록해 두지 않았고, 따라서 서양보다 먼저 금속활자를 발명한 자랑스러운 사실이 오랫동안 묻혀 있었다.

근대사회로 와서야 그것이 서양보다 훨씬 앞선 발명이었음을 알아내고 큰 자랑거리로 삼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어느 천재 발명가가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처음 만들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 역사에는 그런 일들이 더러 있다. 지금 우리가 역사에서 자랑하고 있는 고려청자 상감 기법을 누가 어디서 어떤 경위로 처음 발명하게 되었는지 잘 모르면서 자랑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다.

누가 처음 발명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 해도 우리 민족 중의 한사람이 우리 땅에서 발명한 것은 틀림없으니 자랑해도 괜찮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금속활자 제조법의 경우 서양보다 2백년이나 앞서 발명해서 사용한 사실을 자랑해도, 정말 역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가 하고 따지면 그렇다 하고 장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우리 역사학은 그 문제에는 눈감은 채 자랑만 하고 있는 것이다.

금속활자에 앞서서 필사본이나 목판본이나 목활자본으로 책을 만들었을 때는 대량생산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책을 통한 지식의 보급이 확대되기 어려웠고 지식의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금속활자로 인쇄하여 책을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식의 대중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같은 지식의 대중화가 세상을 바꾸어 가게 된 것이다. 서양의 금속활자 발명은 바로 지식의 대중화로 연결되었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목판이나 목활자로 책을 만들 때나 금속활자로 책을 만들게 되었을 때나, 그 책은 전체 국민의 불과 몇 할밖에 안되는 양반들이 읽는 한문으로 된 책만이 주로 정부가 경영하는 인쇄기관에서 몇 권 만들어졌을 뿐이고, 일반 서민이 읽는 한글로 된 책의 대부분은 필사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경우 금속활자 발명이 책의 대량생산과 그 결과로서의 지식의 대중화와 직접 연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양반문화권을 위한 인쇄에 한정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때문에 개화기에 와서 지식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는, 고려시대에 발명되어 5백년 역사를 가진 우리 금속활자 인쇄술이 지식의 대중화를 위한 근대 인쇄술로 연결되지 못하고 새로운 금속활자와 인쇄기를 고스란히 일본에서 수입하게 된 것이다. 금속활자를 남보다 먼저 발명한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역할과 연결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역사학이 알면서도 슬쩍 넘어가고, 다만 서양보다 먼저 발명한 사실만을 자랑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이런 글을 쓰게 되었다. ❖

초점	2	납본제도, 시대에 맞게 탈바꿈해야 법규 일원화, 보상금 현실화의 개선 시급
출판화제	4	서점가에 '대선'의 책들이 뿔다 대선 후보들 정치관 드러내 ... 선거전 전망한 책도 한류
출판 포커스	5	비전 없는 출판환경 - 이중한
출판화제	6	문인들이 쓴 동화·동시집 활발·외
저자 인터뷰	8	《지역패권의 나라》 펴낸 황태연 교수
화제의 출간	9	케네스 O. 모건 엮음 《옥스퍼드 영국사》 - 송규범
화제작 읽기	10	기슴에 저머오는 민족의 아픔과 그 되새김 - 진덕규 김원일 지음 《불의 제전》을 읽고
특집 에세이	12	돌탑 혹은 삶의 밀도에 대하여 - 한승원
	13	저물녘, 나의 특별한 공간 - 오성찬
	14	쇠뿔이 보고 싶다 - 김용택
	15	미래에 대한 믿음을 텃밭에 심고 - 박형진
탐방	16	국내 최초로 '멀티미디어 정보센터' 문 연 흥익대 도서관
포럼	18	"출판을 문화전략의 핵심으로 키워야" - 이수성 21세기 한국사회 문예부흥과 출판문화
나의 학문과 책읽기	20	인생의 돋보기를 쓰고 들여다본다 - 김열규
책갈피 산책	19	《4·3은 말한다》를 읽고 - 한림화
	21	《미스터 파인만》을 읽고 - 김태형
연재기획	22	밀리언셀러 시집이 연 시의 대중화시대 책과 떠나는 시간여행 9
서평	24	김상기 《한말의병연구》 - 홍순권 한국정신대연구회 《한일간의 미청산과제》 - 김영명
	25	김윤식 《김윤식의 현대문학사 탐구》 - 김명인
	26	유니츠 《현대분석철학》 - 이종권 김재권 《심리철학》 - 김광수
	27	크리스테바 《언어, 그 미지의 것》 - 정지영
	28	인네스 《아방가르드 연극의 흐름》 - 김미도 네틀턴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 조병희
이 책 그 사람	28	《암자로 가는 길》 펴낸 정찬주씨 《한국의 성지》 펴낸 이선민씨
	29	《황금털 사자》 펴낸 최승호씨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펴낸 진현종씨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48	책의 문화유산 11